‘UN평화문화특구’ 콘텐츠사업 추진 활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받아 6·25전쟁 다큐멘터리 제작

교과부 지역인재육성사업 ‘UN평화교실’ 운영도

남구 일원에서 다양한 글로벌문화콘텐츠사업이 펼쳐지고 있어 평화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남구가 UN평화문화특구로 지정되면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콘텐츠사업은 6·25전쟁 61주년을 맞아 자유와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UN참전국의 고마움을 되돌아보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남구와 (사)나눔재단 평화나눔사업단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6·25전쟁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6·25전쟁 참전국을 방문해 참전용사는 물론 머나먼 이국땅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을 보내야만 했던 유가족들의 일상을 담아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올 연말 지상파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며 2013년까지 연작으로 제작, UN참전국에 헌정하는 앨범으로 새롭게 제작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02년 상표등록을 마친 16개 참전국 용사들의 캐릭터를 활용한 관련 상품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6·25전쟁 당시 UN군으로 참전했던 국가 출신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참여 프로그램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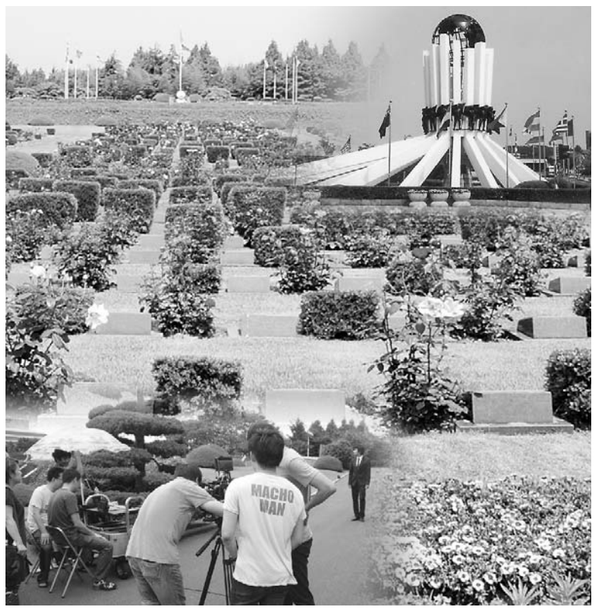
남구문화원(원장 성재영)은 역사문화체험교육원과 공동으로 ‘참여와 소통이 있는 UN평화교실‘을 마련하고 지난 9일 개강식과 함께 운영에 들어갔다.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 ‘지역인재육성사업 사회적자본형성’부분에 선정되면서 열리고 있는 이 교실에는 부산지역 초·중학생 40명과 다문화가정 자녀 20명, 그리고 60세 이상 실버세대 20명 등 모두 80여명이 수강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지역의 특성화된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교육문화자원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다.

특히 UN참전국가 자녀와 한국 청소년들은 ‘평화지킴이’로서 한국과 대상 국가 간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 교육은 6개월 과정이며 수업료는 전액 무료이다.

이밖에도 (사)국제평화기념사업회와 아시아공동체학교, (사)나눔재단 평화나눔사업단은 6·25전쟁 당시 참전한 국가를 선정, 현지에 문화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등 교육·문화분야의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첫 번째 사업 대상지는 태국 잇산지역에 위치한 야소톤시. 사업단은 이곳에 양국 우호증진을 위한 문화교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참전용사와 그의 가족,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컴퓨터교실과 한글교실, 태권도교실, 한국영화상영관 등을 운영하며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야소톤시에서 건물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는 뜻을 밝혀와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UN기념공원 등을 중심으로 한 UN평화문화특구 남구에서는 자유평화를 컨셉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태국은 6·25전쟁 당시 육·해·공군 파견해 1,200여명이 사상자를 기록하는 희생을 치렀으며 종전 후에도 오랜 기간 주둔하며 한국의 발전과정을 지켜봤다.

센터운영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공동체학교는 지난 23일 교내에서 아시아센터 지원을 위한 일일 찻집을 열었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5월 지식경제부로부터 UN평화문화특구로 지정받으면서 UN평화기념관 건립과 UN평화거리 조성 사업, 젊음의 거리 조성 사업 등 다양한 평화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반갑습니다 – UN기념공원관리처 레오 드메이 국제협력실장

참전용사 아버지 뜻 매일 새겨

캐나다 생활 접고 UN공원서 선친묘 지켜

전쟁참상·자유 소중함 망각해선 안돼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선친의 묘소를 4년 가까이 지키고 있는 벽안의 신사가 있다.

UN기념공원관리처에서 국제협력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레오 드메이(Leo Demay·59) 씨가 바로 그 주인공.

드메이 씨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아버지 묘소를 지키기 위해 2007년 12월 캐나다 생활을 접고 이곳에 정착했다. 현재 그는 퇴역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방문 행사 등을 주관하고 관리처와 협력하는 국가들의 대사관과 협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앙드레 아델라드 레짐발드 씨로 캐나다 로열 22연대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1952년 ‘355번 고개’에서 스무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런 가운데 드메이 씨가 출생했고 생후 보름여 만에 부유한 가정으로 입양돼 친부모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성장했다.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 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그는 2006년 생모 엘렌으로부터 아버지 이름과 한국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캐나다 국회의사당과 문서보관소 등에서 아버지 찾기에 나선 드메이 씨는 선친이 UN기념공원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2007년 4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초청으로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다. 그는 아버지 영전에 헌화하고 관문점을 찾아 아버지가 전사한 곳을 바라보며 인생 최대의 결심을 하게 된다.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뿌리내리기로 한 것이다. 처음에는 UN공원과 가까운 영어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했다. UN기념공원관리처 측에서는 그의 남다른 애국심과 가족애를 높이 사 국제협력실장으로 채용했고 드메이 씨는 꿈에 그리던 아버지를 곁에서 모시게 됐다. 얼마 전에는 캐나다에 있는 고명딸도 할아버지 묘소에 꽃을 바치기도 했다.

드메이 씨가 생각하는 자유와 평화는 무엇일까.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수많은 한국군과 유엔군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한국이 세계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현재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드메이 씨는 오늘도 이역만리서 외롭게 잠들어 있는 2,300명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묘비 하나하나를 쓰다듬고 있다.

UN공원 안장된 최연소 유엔군 이름서 유래

숲과 묘역 사이 위치… 삶과 죽음의 경계 의미

유엔군 전몰용사 2300여 명의 유해가 안장된 UN기념공원에는 길이 110m, 폭 0.7m 의 수로가 있다. 바로 ‘도은트 수로’ 이다.

이 수로의 이름은 UN기념공원에 안장된 유엔군 전사자 중 나이가 가장 어린 호주 병사 제임스 패트릭 도은트(J. P. Daunt)의 성을 따서 지어졌다. 그는 형을 대신해 입대하고 6·25 전쟁 중인 1951년 11월 6일 17세의 꽃다운 나이로 전사해 이 곳에 묻혔다.

도은트 수로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의미한다.

실제 이 수로는 생명의 공간을 의미하는 녹색 숲과 죽음의 공간을 의미하는 묘역 사이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현재 도은트 수로에는 약 200여 마리의 금붕어들이 살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국제평화기념사업회가 유엔의 날을 맞아 도은트 병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역만리에 잠든 전사자들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의미에서 방류한 것이다.

미국 참전용사 미망인 UN기념공원에 안장

미국 참전용사 레지날드 말콤 메세나 씨의 미망인 명자 메세나 씨의 합장식이 지난달 24일 열렸다.

지난달 24일 UN기념공원에서는 6·25전쟁에서 전사한 뒤 UN기념공원에 안치된 미국 참전용사의 미망인이 남편 묘지 옆에 안장되는 합장식이 거행됐다.

미망인은 바로 메세나(Myong Cha Mathena·76) 씨로 지난 1월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 메세나씨는 생전 “내가 죽거든 남편이 묻혀있는 한국의 UN기념공원에 함께 묻어달라”는 유연을 남겼다. 메세나 씨는 숨진 뒤 그녀의 바람이 미국 현지의 장례업체를 통해 주한미국 대사관으로 알려졌고 대사관은 UNMCK에 합장을 건의했다. 이후 그녀의 소원대로 남편인 6·25전쟁 참전용사 레지날드 말콤 메세나(Reginal Malcolm Mathena)씨의 묘지 옆에 잠들게 됐다.

레지날드 말콤씨는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 서울에서 부인인 메세나 씨를 만나 결혼했다. 그 후 1975년 직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그의 소원대로 UN기념공원에 안장됐다.

합장식을 주관한 주한미국 대사관은 조용하고 엄숙한 가운데 안장식을 갖고 싶다는 뜻을 밝혀 이날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메세나씨가 안장됨에 따라 현재 UN기념공원에 합장된 부부묘는 모두 5기로 늘어났다.

아덴만 여명작전 기념비 건립

해군작전사령부, 내년 1월 준공 예정

“아덴만 여명작전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기증합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에 대한 구출작전인 아덴만 여명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제작된다. 해군작전사령부(사령관 중장 황기철)는 부산시로부터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아덴만 여명작전의 쾌거를 영원히 기념하고 장병과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기념비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높이 8m 규모의 기념비에는 작전기간과 전력, 성과 등의 내용이 새겨질 예정이며 ‘아덴만 여명작전’1주년이 되는 2012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달 설계안을 공모해 심의한 다음 내년 1월까지 제작, 해군의 자긍심 고취하는 것은 물론 안보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해작사 관계자는 “해군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큰 시련을 겪었지만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며 “작전의 쾌거를 시민들과 함께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기념비를 건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아덴만 여명작전은 청해부대가 지난해 1월21일 아라비아해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우리 화물선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을 구출하고 해적을 모두 제압한 작전명으로 해군 역사상 빛나는 전과 중 하나다.

여성가장 요리 전액 무료!
지원 자격
■여성가장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미혼 여성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는 여성
지원 내용
■수강료 60만원(전액 무료)
■교통비 월 5만원 지급
모집 과정
■모집과목 : 한식 조리 취업반
■모집정원 : 30명(선착순 마감)
■교육기간 : 7주 과정(주 5일 수업, 월요일~금요일)
오전반 : 10시~1시(3시간)
오후반 : 2시~5시(3시간) ※ 자유 선택
재직자 국비 지원 수강생 모집!
■모집과목 : 한식·양식 조리 기능사반
■모집정원 : 12명 선착순 마감
■교육기간 : 한식 7주, 양식 5주 과정(저녁 7시~9시, 월~목)
전국 총 50개 지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인 식나라조리학원
교무실 : T.644-2111 위치 : 범내골 지하철역 1번출구

행복을 찾아드리는
예향재가장기요양기관(재가노인복지센터)
행복을 찾아드리는 예향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아름답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제공서비스 방문요양(신체활동, 일상생활, 정서지원서비스), 방문목욕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받으신 분, 받으실 분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는
예향 전문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우수기관 선정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944-4505, 010-7645-4505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기관